

불안한 한빛원전... 무더기 소방법 위반

잇단 화재 특별점검 96건 적발
관리 허술 1발전소 소장 입건
지난해 49건 적발... 개선 안돼
매뉴얼 바꾸고도 누락신고 여전

생시 누락신고했던 기존 방침을 '즉시 신고'로 변경하고, 신고의무를 규정한 소방기본법을 준수하겠다고 지난해 10월 소방당국에 밝혔으나 올 3월 발생한 화재에서 또다시 불이 나고 37분이 지나 누락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영광소방서는 지난달 18일부터 5일간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에 대해 소방특별안전점검을 벌였다.

특별소방점검은 원전이라는 위험시설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강도 높은 점검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시민사회 목소리와 전남도의회 촉구 등에 따른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할인 원자로건물은 점검에서 제외됐다.

점검 결과 소방관련법 위반 사항 27건, 건축관련법 26건, 전기관련법 18건, 위험물관련법 25건 등 9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행정본부 건물에서 37건, 1발전소 18건, 2발전소 9건, 3발전소에서는 32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1발전소에서는 위험물관리법에서 위험물질로 규정한 윤활유의 지정된 양을 초과해 보관한 사실이 적발됐고, 소방서는 그 책임을 물어 1발전소 소장 A씨를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1, 2발전소 통합자재창고 방화셔터 비상탈출구에 선반을 설치, 화재 등 비상시 탈출 및 정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협력사 사무실 계단 방화문 자동폐쇄 장치 불량 사실도 적발됐다.

소방점검 과정에서 한빛원전 측이 화재시 지체 없는 신고 의무를 규정한 소방기본법을 무시로 어겼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뒤에도 관행을 버리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소방당국의 문제제기에 따라 원전측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거

쳐 전국의 모든 원전에서 화재 발생시 지체 없이 신고하기로 매뉴얼을 바꿨다'고 영광소방에 밝혔으나, 올 3월 9일 새벽 2시20분께 한빛 1호기 격납건물(콘크리트 돔 모형) 내부 원자로 냉각재 배관 보존재에서 불이 났는데도 이전처럼 37분이 지나 당국에 누락신고한 것이다. 이와 관련, 영광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신고 의무를 위반해도 벌칙조항이 없어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남도의회 장세일 한빛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빛원전은 전남·북지역 전력수요 58%를 차지하는 국가기간시설이자 단 한 번의 중대사고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일종의 위험시설"이라며 "잇단 화재와 고장사건으로 지역민 우려가 큰 만큼 원전 운영사 측은 화재 신고는 물론 안전관리에 한 차의 소홀함이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호남예술제 금상의 화려한 춤사위
동작을 다중촬영했다.

24일 광주 학생교육문화관에서 열린 제64회 호남예술제 한국무용 창작 독무 부문에 참가한 조은별(광주예고 2)양이 화려한 춤사위를 선보이고 있다. 조양은 이날 세월호 사고를 주제로 한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제목의 창작무용으로 금상을 수상했다. 조양은 춤 동작을 다중촬영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남구 캠핑용품 등 물품 공유센터 조성

광주시 남구가 저렴한 비용으로 캠핑용품, 각종공구 등을 공유하는 물품 공유센터 조성한다.
24일 남구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가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물품 공유센터 구축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남구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 지역 내에 물품 공유센

터를 조성한다.

남구 주민들은 물품 공유센터를 통해 체육용품이나 캠핑용품, 장례용품, 각종 공구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특히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물품 공유센터와 연계해 보다 많은 물품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남구는 조만간 물품 공유센터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물품 및 공공자원의 활용을 통해 사회·경제·환경적 공유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물품 공유센터 이용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9 달뜨기 00:07
해질 19:13 달질 10:14

빗방울 오락가락

대체로 흐리고 비 내리는 곳 있겠다.

광주	흐리고기름비	14/20	보성	흐림	12/18
목포	흐림	12/19	순천	흐리고한때비	15/19
여수	흐리고기름비	15/17	영광	흐리고한때비	10/20
나주	흐리고기름비	11/21	진도	흐림	10/19
완도	흐림	13/18	전주	비	14/21
구례	흐리고비	13/19	군산	비	12/19
강진	흐림	12/19	남원	비	14/19
해남	흐림	10/18	축산도	흐림	12/17
장성	흐리고비	11/20			



◇ 바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1.0	서~북서	0.5~1.0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5
남해 앞바다	서~북서	0.5~1.0	북동~동	0.5~1.0
남해 서부 앞바다(동)	서~북서	0.5~1.5	북동~동	0.5~1.5
남해 서부 앞바다(서)	서~북서	1.0~1.5	북서~북	1.0~1.5

◇ 물때

지역	간조	만조
	목포	11:23 23:24
여수	06:49 18:29	00:39 12:31

◇ 주간 날씨

날짜	26(금)	27(토)	28(일)	29(월)	30(화)	5/1(수)	2(목)
날씨	☀	☀	☁	☁	☀	☁	☁
기온	9/14	8/21	10/19	13/20	13/22	12/21	12/23

내일 오전까지 5mm 내외 봄비... 일부지역 짙은 안개

26일 오전까지 광주·전남에 5mm 내외의 봄비가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5일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 영향으로 비가 예상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14도, 전남 9~16도로 낮 최고기온은 광주 21도, 전남 17~21도로 전남보다 1~3도 가까이 낮을 것으로 예보됐다.

이번 비는 25일 오후 전남 북부지방에서 시작, 남해안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확대돼 26일 오전까지 내리다가 그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26일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10도, 전남 8~12도로 평년(광주 8.9도, 전남 6.3~11.1도)보다 1~2도 가까이 높고 낮 최고기온은 광주 16도, 전남 13~19도 분포로 평년(광주 21도, 전남 18.8~20.8도)보다 3~5도 낮겠다. 기상청은 오는 28일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26일까지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는 등 가시거리가 1km 미만의 짙은 곳이 있을 수 있다"면서 "특히 항해나 조업을 하는 선박은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동신대 3년 연속 '산업계가 뽑은 최우수대학' 선정

동신대학교가 3년 연속 산업계가 뽑은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동신대는 '에너지융합대학 신재생에너지전공'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2018년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에서 에너지 분야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환경·에너지·바이오의약

·바이오의료기기·광고 등 5개 산업 분야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중 참여를 희망한 대학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동신대는 2016년 토목공학과(토목 분야), 2017년 정보통신공학과(정보통신 분야)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대학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진남호국문화
제53회 **여수**
거북선 축제

2019.5.3.(금) ~ 5.5.(일)
여수시일원(이순신광장, 선소)

주요행사
통제영길놀이 / 소동놀이 / 드론라이트 쇼 / 고유제 / 개막식 / 독제 / 전라좌수영 수군출정식 / 해상퍼레이드 / 임란유적지 순례 / 여수맛장터 / 체험 및 부대행사 / 패밀리테마존(선소)

주최 여수시 (사) 여수진남거북선축제보존회 주관 제53회 여수거북선축제위원회

“진남호국의 열! 만세불빛이 되다”